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UMMER 2015 여름호

부스인사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1-80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744-7708~9
www.tongsinsa.com



이름



사진 | 우시마도[牛窓] 전경

출처 | 『사진으로 본 조선통신사 10년 여정』(재)부산문화재단

우시마도에는 통신사 일행이 숙박지로 사용한 혼렌지[本蓮寺]와 오차야[お茶屋]가 있다. 혼렌지는 1992년 히로시마현의 후쿠젠지[福禪寺], 시즈오카현의 세이켄지[清見寺]와 함께 '조선통신사 유적'으로서 국가 중요사적에 지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 자료관인 카이유분카칸[海遊文化館]이 있으며, 통신사행에 참여했던 소동들의 춤을 본떠 만든 '가라코 오도리[唐子踊り]'가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UMMER 2015 여름호

CONTENTS

권두칼럼 04 조선통신사 세계기억유산 등재를 향해서
일본 참의원의원 | 에지마 기요시

성신교린 06 조선통신사와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 안병길

통신사 24時 10 두 바퀴로 달리는 新조선통신사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11 2015 조선통신사 한일 네트워크 사업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기획특집 12 부산박물관 2015년 국제교류전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을 준비하며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 위순선

조선통신사 이야기 15 아사히 분자에몬의 딸 곤과 조선통신사
요미우리신문 중부지사 기자 | 센다 다쓰히코

21C 조선통신사 20 2015 조선통신사 축제 참가 후기
사이타마 에이사타이 | 노구치 겐이치
쓰시마 「사쿠라유키 Ma-u」 | 나가세 미사코
도요렌 테마리 | 사카구치 신이치로
정신해 무용단 | 윤혜선

최화수의 문화읽기 24 화해和解의 메시지... 일본 극단의 뮤지컬 공연
_ 조선통신사 소재 <쓰바메>, 실존인물 <오다 줄리아> 등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최화수

조선통신사 NEWS 26 제5회 명작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그림으로 찾아가는 조선통신사 27 조선통신사 회화 교류 속에 꽃 핀 우호교린
부경대 사학과 교수 | 박화진



<표지 설명>

사진 | 관수루

출처 |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경진, 2012)

1607년 사행이 오고 가는 길에 모두 둘러 점심을 먹었던 곳이며 주로 일본에서 돌아온 사행이 상주로 향하면서 들렀던 곳이다. 관수루는 일찍이 김종직이 선산의 월파정(月波亭), 안동의 영호루(映湖樓)와 함께 선두를 다룬다고 칭찬해 마지않은 누각이다. 지금은 상주와 의성의 경계 지점인 의성군 단밀면 낙단교 동쪽 언덕에 그 이름처럼 낙동강을 바라보고 서 있다.

발행일 2015. 7. 27 발행인 이문섭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744-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두손컴 Tel 051-805-800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광역시 2015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세계기억유산 등재를 향해서

朝鮮通信使の世界記憶遺産登録に向けて

下関市長在職中、朝鮮通信使行列再現事業に下関市として取り組んだ。第8回(1711年)時には『長門下之関御馳走一番』(下関で供されたご馳走が一番だった)という記録も通信使によって残されている。そこで、行列再現イベントの一環として300年前の「下関のおもてなし料理」の再現を行い、好評を博した。平和の象徴であった「朝鮮通信使」を世界記憶遺産に登録する事は、今後の両国関係の改善に大きく貢献するものと確信している。



에지마 기요시 · 일본 참의원의원
江島 潔 · 日本 参議院議員

한일 양국에 있어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큰 전기를 맞이하는 올해, 조선통신사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큰 영광이다. 필자는 현재 야마구치현에서 선출된 참의원의원이지만, 전직으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시장직을 1995~2009년 동안 역임했다. 임기 중 시모노세키시의 자매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류 사업을 한국 각지에서 진행해왔다. 포트 세일즈 및 관광객 유치활동, 스포츠 교류 등에도 힘써 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통신사”의 현창사업은 내가 해왔던 각종 사업 중에서도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과 조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1607~1811년까지 약 200년간 총 12회에 걸쳐 계속된 “조선통신사” 일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에도 시대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으로 당시에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없던 일본인에게는 큰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상황에 비춰 비교해 본다면 우주인과의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전국 각지 어디서든 얼마큼 환대를 받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시모노세키의 시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 시모노세키시 최대 축제인 “바칸 마츠리”의 이벤트 중 하나로 조선통신사 행렬의 재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에서 같은 사업 현장기관인 조선통신사 역사문화사업 추진위원회(당시)를 이끌어가던 최고 책임자 강남주 선생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 여러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의 대대적인 협력 없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한 번 본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조선통신사(총 12회)의 방문 중 마지막 12회 방문을 제외한 11회 모두 혼슈의 첫 상륙지점인 “아카마가세키”, 즉 현재의 시모노세키시를 들렀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서 성공의 키워드는 “환대”라는 단어였는데, 이 사상은 먼 옛날부터 일본인의 DNA에 각인되었던 것 같다. 당시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던 일본 각지에서는 경쟁하듯 일행에게 고급요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역대 통신사의 일본방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1711년 제 8회 기록에 “長門下之関御馳走一番”(시모노세키에서 제공된 접대가 최고였다.)라는 기술이 있다.

조후[長府]의 번주 모리 요시모토[毛利吉元]가 직접 접대를 했을 정도로 그 정성이 아주 지극했다 한다. 그 후 2007년 시모노세키시에서는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요리연구가 등의 조언을 얻어 1711년 당시의 “시모노세키 접대요리” 재현을 도모하기도 했다.

식자재, 조미료, 조리방법 모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던 당시의 요리는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 솔직히 그다지 식욕을 돋구는 것은 아니었다. [주: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속에다 몸에 좋은 식재료를 많이 갖추어 둔 ‘삼계탕’이다.] 그러나 300년 전 사람들에게 대접한 ‘접대 요리’는 분명 놀라운 음식이었음에 틀림 없었을 것이다. 재현된 요리를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선인들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본다.

오늘날 한일관계는 역사상 가장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약 20년마다 1번, 총 300~500명 규모로 일본을 방문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무려 27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참고로 방한 일본 인원은 약 230만 명). 방일 한국인 수만 비교하더라도 400년 전에 비하면 무려 십수만 배 규모의 교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전에 비해 양호한 한일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이 원인 중 하나로 양국 언론

의 보도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외국인면서 이웃 나라인 국가의 진정한 실정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 등의 간접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조선통신사였던 당시의 사람들도 일본체류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적어 놓은 것이 매우 흥미롭다. 것처럼 우리 현대인도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에만 목적을 둔 상업 언론 즉 선입견이 들어간 보도를 통해 상대국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얻은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다시 한 번 조선통신사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동아시아에서 각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지만, 지금은 많은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며 경제적으로도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불행히도 현재는 한반도가 둘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정된 정치상황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평화로운 시대에서 한일 양국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현창해 나가는 것으로 진정한 양국 간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현창의 집대성인 동시에 한일 양국 간 21세기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최고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웃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것보다 행복한 관계는 없다. 한일국교 정상화가 50주년 되는 올해, 필자도 한일우호 의원 연맹의 일원으로서, 또한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전 시장으로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념 이벤트 등 가능하면 젊은 세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그 집대성으로 조선통신사가 세계기억유산으로 인정되고 한일 양국의 우호를 북돋워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조선통신사와 부산 - 후쿠오카 포럼

朝鮮通信使と釜山 - 福岡フォーラム



안병길 ·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安炳吉 · 釜山日報社 代表理事 社長

今年是光復70周年であり、韓国・日本の国交正常化50周年になる年である。しかし、いまだに両国は過去歴史の重荷を下ろすことができない。壬辰倭乱以後、朝鮮通信使の文化交流の先例こそが隣接している国家間での平和と共生をもたらした親善外交の良い例である。昨年と今年で韓国と日本の民間団体を中心にした通信使の資料を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に共同登録するための活動が進められている。これは、民間・地域レベルの積極的な外交活動というところが2006年から毎年開かれている「釜山 - 福岡フォーラム」と共通点を持つ。



1 제1차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포럼(사진제공 : 부산일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국·일본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이다. 그런데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경색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중국 초강대국 간 힘겨루기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중·일 간 영토분쟁과 역사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 맞아 양국 상생의 물꼬 터야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문제와 독도문제 등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이처럼 민감한 정치외교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한 사과와 화해, 상생의 물꼬를 터는 작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를 왕래했던 조선통신사의 선례야말로 인접한 국가 간 평화와 공생을 가져온 친선 외교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냉랭한 한·일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조정에서 일본 에도(동경) 막부로 파견한 친선도모 외교사절단이 바로 조선통신사였다. 1607년에서 1811년까지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을 통해 조선 왕조와 일본 에도막부는 200년 이상의 평화 외교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렀던 인접한 두 나라가 수백 년 간 전쟁 없이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임에 분명하다.

조선통신사 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사 일행이 남긴 시문, 편액, 현판, 병풍, 문서 등 문화적인 유산들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힘입은 바 크다. 당시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갈 때면 현지인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대륙과 조선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 구름떼처럼 연도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조선통신사가 요즘 한류(韓流) 열풍의 원조인 셈이다.

문화를 통한 교류와 상호 신뢰 구축은 국가 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외교의 정수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중심이 돼 매년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통신사 문화축제와 일본 연고지역 내 통신사 행렬재현 행사 등은 조선통신사가 갖고 있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유전자를 잇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조선통신사 관련 시(詩)·서(書)·화(畵), 문서 등 역사문화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 등재하기 위한 활동들이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연구지역연합회(사)가 각각 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구성해 등재 신청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 제9차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회의(사진제공 : 부산일보)

이 작업은 문화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얼어붙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민간과 지역 차원에서 뚫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다. 국가적 차원의 민감한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민간 부문에서, 그것도 부산과 쓰시마·시모노세키 등 조선통신사 연구 지역의 교류를 통해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통신사 유네스코 공동등재 닮은꼴 민간·지역 차원 외교활동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뚫어야

그런 맥락에서 지난 2006년부터 한·일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9월 열리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민간-지역 교류의 한 훌륭한 전형을 보여준다. 부산일보사는 2006년 창간 60주년을 맞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자매신문인 서일본신문과 공동으로 두 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분야의 민간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지방도시이자 한일해협권의 중추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 연대 기구의 발족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한일관계는 역사문제, 독도문제,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등 외교적인 난제가 산적해 있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

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인구의 감소 등 극복해야 할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도시 부산’과 ‘아시아 거점도시 후쿠오카’를 표방하고 있는 양 대도시의 민간 지도자들끼리 국제적인 지적(知的) 연대를 결성하여 난관을 돌파해보자는 취지로 탄생시킨 지역 민간 기구가 부산-후쿠오카 포럼이었다. 말하자면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국경을 넘는 지역(cross-border region)’ 간 협력과 외교활동을 통해 양 지역의 우호 증진과 상생은 물론 한·일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정부 간 교섭에 맡기되, 민간 부문에서 지역 간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얼어붙은 정치외교적인 난국을 훨씬 부드럽게 타개해 나갈 수도 있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활동과 현재 진행 중인 조선통신사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추진은 민간·지역 차원의 적극적 외교활동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마침 올해는 적극적으로 조선통신사를 맞아들어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되는 해로, 일본에서 그를 기리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인 올해, 양국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양국 간 평화와 상생의 발판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지향하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문화적 초석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



4 부산-후쿠오카 포럼 제7차 부산회의(사진제공 : 부산일보)

5 제9차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회의(사진제공 : 부산일보)

2015 조선통신사 한일 네트워크 사업

2015朝鮮通信使の韓日ネットワーク事業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특별한 해이다. 지난 5월 개최된 "2015 조선통신사 축제" 이후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 달부터 일본 조선통신사 연구도시인 쓰시마, 시모노세키, 시즈오카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관련 축제에 참가한다. 쓰시마 이즈하라항 마쓰리는 2013년 불상 도난 문제와 2014년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이 취소되었다.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되는 행렬재현인 만큼 어느 해 보다 쓰시마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시모노세키는 직년에 이어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문화 교류공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 등의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된 시즈오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공 현창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며, 행렬재현,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특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바퀴로 달리는 新조선통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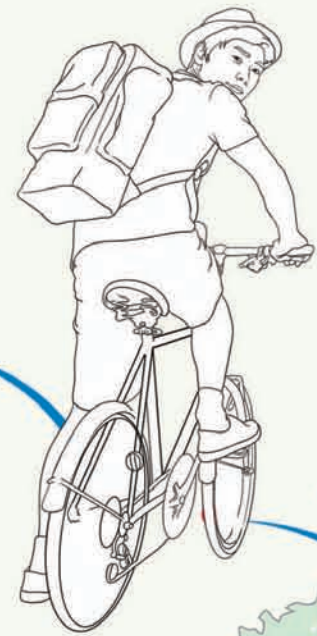
二輪で走る新朝鮮通信使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외교부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가 주최하고, 두 바퀴로 달리는 조선통신사 실행위원회와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두 바퀴로 달리는 新조선통신사"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9일(30일간) 서울에서부터 도쿄까지 한일 양국 조선통신사 연구도시를 자전거로 답사하면서 조선통신사 선린우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금년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 및 시민들을 각 25명씩 선발하고, 총 50명

의 인원이 서울을 출발하여 영천, 부산 등을 경유하며 일본 쓰시마, 시모노세키, 오사카, 교토, 나고야, 시즈오카, 도쿄까지 자전거로 달린다. 뿐만 아니라 각 연구도시에서 다양한 한일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사회 복지시설, 지진피해지역,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도 자원봉사 운영, 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사업에 참여할 양국의 참가자들은 옛날 조선통신사의 뜻을 받들어 新조선통신사로서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가 조금 이나마 회복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 쓰시마 이즈하라항 마쓰리

- 일시 | 8월 1일(토) ~ 2일(일)
- 장소 | 쓰시마시 일원
- 내용 |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국서 교환식, 부산대표 예술단 파견



✿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

- 일시 | 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시모노세키시 일원
- 내용 |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국서 교환식, 문화교류공연, 조선통신사(부산) 홍보 부스 운영



✿ 시즈오카 슌푸천하태평 마쓰리

- 일시 | 9월 19일(토) ~ 21일(월)
- 장소 | 시즈오카시 일원
- 내용 |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문화교류공연, 한지인형 전시 등



부산박물관 2015년 국제교류전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을 준비하며

釜山博物館の‘2015年国際交流展
〈朝鮮時代の通信使と釜山〉’を準備しながら



위순선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魏順善 · 釜山博物館 学芸研究士

釜山博物館(館長 朴方龍 バク・パンリョン)は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400年間の平和の使節団である通信使を再照明し、両国の発展した未来像をお祈りする2015年国際交流展〈朝鮮時代の通信使と釜山〉(2015.10.24.(土)~2015.12.6.(日))を開催する。今回の展示は朝鮮時代の通信使の中で文化使節団の性格を持つ江戸時代の通信使(1607年から1811年まで12回派遣)に重点をおいて説明した。加えて使行の出発地である釜山での旅と釜山の日本人町である倭館を通信使と関連づけて新たに照明した。

전 시 명 2015년 국제교류전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전시기간 2015. 10. 24(토) ~ 2015. 12. 6(일)
전시장소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개막일시 2015. 10. 23. 16:00(예정)



마상재(馬上才)는 1636년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 1604~1651)가 처음 관람한 이래 에도의 관백 앞에서 형례(恒例)로 펼쳐졌다. 이 그림은 '마상림(馬上立)', '쌍기마(雙騎馬)', '마상도립(馬上倒立)' 등 마상재의 다양한 기술(馬技)이 표현되어 있다. 마상재 그림은 판화로도 제작·인쇄되어 에도 서민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부산박물관(관장 박방룡)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400년 평화의 사절단 통신사를 재조명하며, 양국의 발전된 미래상을 기원하는 ‘2015년 국제교류전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2015.10.24.(토)~2015.12.6.(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통신사 중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띠는 에도시대의 통신사(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 파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더불어 사행의 출발지 부산에서의 여정과 부산의 일본인 마을 왜관을 통신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하였다.

전시구성은 통신사의 여정에 따라 크게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장에서는 “만리(萬里)길 부상(扶桑)을 향해”에서는 사행의 최종 점검지이자, 출발지인 부산에서의 여정과 사행에 참여했던 부산사람들, 부산의 일본인 마을 왜관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쓰시마(対馬)를 넘어 에도(江戸)까지”라는 주제로 부산을 떠난 사행단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通信의 땅, 쓰시마에 대해 다룬다. 쓰시마는 왜관을 통한 대조선 외교, 특히 통신사 빙례를 주관하고 에도까지의 호행을 담당했던 곳이다. 이어 일생에서 두 번 만나기 힘든 최고의 퍼레이드, 통신사의 장대한 행렬을 보여주는 행렬도와 각종 기물과 책자에 표현된 통신사 이미지를 통해, 일본이 통신사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고 소비했는지 알아본다. 끝으로 각 번과 막부의 화려하고 극진한 통신사 맞이와 이에 대한 통신사의 답례를 다루었다.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의 딸 곤[こん]과 조선통신사

朝日文左衛門の娘こんと朝鮮通信使



센다 다쓰히코 · 요미우리신문 중부지사 기자
千田 龍彦 · 読売新聞 中部支社 記者

尾張藩の御豊奉行・朝日文左衛門の日記「鸚鵡籠中記」は、名古屋城下を通行する第8回朝鮮通信使(1711年)の記録として、研究者にも取り上げられてきた。しかし、文左衛門の娘こんが、通信使見物のために嫁ぎ先の水野家から里帰りし、家族や親戚と見物に出かけたことはあまり紹介されてこなかった。しかも、この見物には、水野家の嫡子で、こんには継子となる嘉吉を、朝日家の人々に認めさせるとの秘めた「目的」があった。



세 번째 장 “성신(誠信)의 사궐”에서는 통신사와 일본 문인들이 남긴 필담창화집과 봉별시고, 글씨·그림 등을 전시하여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조태억(趙泰億)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승려 벳슈(別宗)의 사궐, 신유한(申維翰)과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사궐을 통해 양국 간 성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번 전시는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을 비롯한 일본 공·사립박물관 6개 처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15개 국·공·사립박물관의 귀중한 유물이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박물관이 지난 30여 년간 중점적으로 수집했던 통신사 관련 자료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들 자료 중 주목되는 것은 나가사키현립쓰시마민속자료관(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 소장의 <한글편지>이다. 왜관의 역관이 일본 통사에게 개인적으로 쓴 것이지만, 1811년 역지사행(易地使行)인 신미통신사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통신사와 관련된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간 외교 문서인 <조선통신사봉서(朝鮮通信使奉書)>와 <대마도주서계(對

馬島主書契)>를 비롯하여 한일문화 교류의 직접적 자료가 되는 <이의양필 산수도>, <성몽량·의현 필 행서>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박물관은 1978년 개관 이래 부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 관련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지역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통신사, 왜관 관련 자료 등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한일관계사 관련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박물관이 37돌이 되는 해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산박물관은 대내외적으로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한일관계도 역시 중요한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 경직된 정국(政局)을 깨고 우호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양국의 민간, 특히 문화면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박물관의 이번 전시가 이러한 움직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한·일간 성신(誠信)의 상징인 통신사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서 반드시 되짚어야 할 역사이며 교훈이다.





1711년 10월 5일 새벽 오가키[大垣]를 출발한 제8회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미노지[美濃路]를 거쳐 나고야[名古屋]로 향했다. 통신사 일행의 숫자는 쓰시마[對馬]의 번주(藩主), 번사(藩士)는 물론 인부까지 포함하여 천 명이 넘었다. 많은 인원이다 보니 자연히 시간이 지체되었고 도중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이비[異斐], 나가라[長良], 기소[木曾]라는 세 강은 다리가 없어 나룻배로 건너야 하는데 통신사 행렬을 위해 특별히 부교가 놓여졌다. 부교란 배를 옆으로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판을 놓은 임시 다리였지만 코끼리도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했다.

행렬은 선두부터 말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선발대는 점심을 먹은 후 쉬지 않고 걸어 나고야에 도착했으나 정사, 부사 등이 있는 본대는 기소강을 건넌 후 오코시쥬쿠[起宿]에서 점심을 먹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밤 9시가 다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숙소인 나고야성 주변의 사원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부사인 임수간의 기행록「동사일기(東槎日記)」에 ‘구경꾼의 수는 오사카[大坂]를 능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는 구경하는 인파로 넘쳐났다. 아예 나고야성 서쪽 하바시타[幅下]에 있는 미노지의 상점은 구경을 위한 관람석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그 중 한 곳에는 오와리 번[尾張藩]의 오타다미부교[御禮奉行]인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의 가족과 친척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행렬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다. 평균 20년에 1회로 계산된다. 당시의 사람들이 통신사 행렬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두 번뿐이라는 이야기다. 다행스럽게도 참근교대(參勤交代)*의 다이묘[大名] 행렬과 같은 딱딱함도 없어서 서민의 흥분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높은 관심은 무가(武家)도 다르지 않았다. 통신사 숙박 장소의 총책임을 맡은 분자에몬의 장녀로, 미즈노가[水野家]로 시집간 곤(こん)은 통신사 구경을 위해 이틀 전에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산골의 저택에서 성 밑 차카라스지[主税筋]에 있는 아사히가[朝日家]로 미리 와 있었다. 미즈노가는 오하야시부교[御林奉行]를 세습하는 명가였다. 또 통신사가 도착하는 당일 오전 8시에는 할머니와 아사히가의 친척들, 남편인 큐지로[久次郎], 시아버지인 칸다유[勘太夫]가 합류하여 하바시타의 상점에

*참근교대(參勤交代) : 다이묘(大名)를 정기적으로 에도(江戸)로 오고 가게 함으로써 각 번(藩)에 재정적 부담을 가하고, 볼모를 잡아두기 위한 에도 막부(幕府)의 제도

서 행렬이 오기를 함께 기다렸다.

통신사 본대가 상점 앞을 지나가기까지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때까지 관람석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로 식사와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통신사 숙박장소의 경계를 맡게 된 아버지 분자에몬과 고령으로 발이 불편한 할아버지 조에몬[定右衛門], 출산을 앞둔 분자에몬의 후처 스메(すめ), 이렇게 3명은 그 자리에 없었으나 대화는 끊임이 없었다.

마침내 통신사 행렬이 나타나고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이 울릴 때 가장 먼저 환호한 사람은 수많은 어른들 속에 낀 유일한 어린이인 곤의 아들 가키치[嘉吉]였다. “이런 이런, 예의를 지키거라” 하며 어머니인 곤이 조심을 시켰지만 그녀도 몹시 흥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가키치는 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2년 전 15살 나이로 미즈노가에 시집왔을 때 그녀 보다 14살 위인 남편 큐지로에게는 이미 적자인 가키치가 있었다. 전처의 아들로 곤에게는 양아들이 되는 셈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곤 자신이 부모의 이혼 후 새어머니에게 자란 경험이 있었고 새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은 기억이 있었다. 그러기에 가키치를 친자식과 다른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미즈노가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곤이 주는 애정의 진심이 가키치에게도 닿았는지 별 문제 없이 잘 따랐지만 문제는 아사히가 사람들이었다. 분자에몬 사람들은 혈연관계가 없는 가키치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곤을 불쌍하게 여겼다. 빨리 그녀의 자식이 생기를 바랐다. 곤은 아사히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양아들이 가키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

다. 그것이 조선통신사의 일본방문에서 실현됐다.

결혼 후 몇 번이나 친가에 왔었지만 가키치를 아사히가에 데리고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통신사 구경은 다음에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른다. 이번에 꼭 가키치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고 곤이 말하자 미즈노가는 물론이고 아사히가의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가키치와 아사히 가문의 첫 만남이 실현됐다.

하지만 아버지인 분자에몬 만은 전과 다름없이 쌀쌀하게 대했다. 통신행렬을 구경하는 당일 아침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다. 그러나 함께 구경 나온 할머니와 아사히가의 친척들은 물론, 집을 지키던 할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친정으로 온 이틀간 가키치에게 다정스러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일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통신사 측의 기록은 물론 일본 측에도 많은 서적과 그림이 남아있고, 때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로야구가 우승했을 때 거리 퍼레이드로 도심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예를 들어 미에현[三重県] 쓰시[津市]와 스즈카시[鈴鹿市]에서도 통신사를 모방한 ‘도진오도리[唐人踊り]’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 국내의 영향이 넓고 깊다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다.

곤의 아버지, 아사히 분자에몬도 27년에 걸친 방대한 일기「오무로츠키[鵜籠中記]」에 제8회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분자에몬의 관직은 오와리 번의 오타다미부교였다. 번주가 사원이나 지방의 숙소를 방문하기 전에 그곳의 타다미를 바꾸는,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후세 우리들에게 행운인 것은 그의 일기가 신변이나 관직의 테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르를 대상





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때에도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와리 번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본인은 먹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통신사 일행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나고야 교외에 있는 산에서 대규모의 사슴사냥이 실시되거나, 생포하는 모습도 기술되어 있다. 이때 활약한 곳이 곤이 시집간 오하야시부교 미즈노가였다.

10월 5일 통신사 일행의 숙박 장소로 지정된 사원에서는 방문한 일본인의 요구에 따라 글과 그림을 철야로 기록하는 통신사의 모습과, 풍습의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하인의 버릇없는 모습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도 경계 중에 그림을 부탁하여 몇 장의 작품을 얻었다. 그러한 부수적인 이익까지 일기에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분자에몬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부의 결정에 따라 오와리 번주가 통신사 마중에 얼굴을 비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관심은 굉장히 많았다. 분자에몬은 다음 날인 6일, 제 4대 번주인 도쿠가와 요시미치(徳川吉通)가 아침 해가 뜨기 전 성 밖으로 나가서 혼마치도오리(本町通) 상가에서 통신사의 출발을 기다렸다고 소개하고 있다. 발이 젖어 있었으므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요시미치의 측실과 장로들도 가까운 곳에 있는 상가를 구경장소로 사용했는데 통신사 일행이 다음 숙박지인 오카자키(岡崎)로 가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사를 구경한 내용도 일기에 등장한다. 그러나 그 기술이 예전과 달리 짧고 간략하다.

3일 곤, 한인(韓人)구경을 위해 오다. 가키치 동행
5일 어머니, 곤, 분시로(文四郎) 부부와 칸다유(勘太夫), 큐지로 등 오전 8시경, 하바시타에 구경하러 갔다.
귀가는 한밤중

이것뿐이었다. 통신사 구경을 '가키치와 아사히가의 첫 만남'으로 하려 했던 곤의 의도도, 가키치의 신나하던 모습도, 곤의 결혼에 대한 분자에몬의 심정도 써있지 않았다. 필자가 묘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적인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에도 시대 중반경에는 무가의 며느리도 통신사 구경을 위해 '친정방문'을 할 정도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자에몬 일기 첫 줄에서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양아들인 가키치를 데리고 말이다. 왜일까. 곤의 결혼과 시집인 미즈노가를 조사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첫 줄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후의 일기를 보면 곤이 분자에몬에게 '가키치를 친손자와 같이 대해주길 바란다'고 몇 번이나 말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분자에몬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1716년에 '가키치는 손자다'라고 선언하는 의식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다음 해 6월 11일 곤에게 기다리던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분자에몬의 아명과 같은 가메노스케(亀之助)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사히가의 기쁨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 드라마였다면 상속싸움, 집안문제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자에몬의 일기에는 나를 경탄하게 만드는 배려가 기록되어 있었다.

같은 해 12월 2일 분자에몬은 미즈노가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손자인 가메노스케와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다. 가키치도 최근 동생에게 주위의 애정을 빼앗겨 힘든 나날이 이

어졌을 것이다. 곤도 결국은 새어머니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때 분자에몬은 가키치에게 '같이 하이킹하러 가자'는 의외의 제안을 한다. 장소는 기암과 큰 바위가 많은 명승지라고 하는데 지명은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저녁 늦게 귀가를 했고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일기에 써있지 않다. 단지 저녁에 맛있는 술을 마시며 미즈노가에 머물렀다는 것뿐이다.

가키치에게 보였던 분자에몬의 배려 뒤에는 가키치에 대한 곤의 흔들림 없는 애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키치에게도 그때의 하이킹이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3주 후 분자에몬이 병으로 쓰러져 붓도 들 수 없게 되었고, 다음 해 9월에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일기에서 볼 수 있는 곤과 가키치, 분자에몬의 관계가 처음에 묘사한 아사히가의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러 가는 모습이 상상의 근거가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 후 곤과 가키치에게는 분자에몬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히 가문의 몰락, 기울어짐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오하야시부교가 된 가키치가 내린 '결단'의 배경에는 처음 아사히가를 방문해 조선통신사를 구경했던 어린 시절과 분자에몬과 둘만 갔던 하이킹의 기억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남기려 한다.

나고야시[名古屋市] 히가시구[東区] 치카라마치[主税町]의 무가자택 자리에 남아 있는 「나가야몬[長屋門]」.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의 자택은 이 근처에 있고, 같은 대문구조였다.

2015 조선통신사 축제 참가 후기

사이타마 에이사타이

埼玉エイサー隊

노구치 겐이치 · 野口 健一

조선통신사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타마 에이사타이는 처음 있는 해외공연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로 이동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등 세심하게 통역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불안감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이번 축제에 참가한다는 기쁨과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5월 2일 용두산공원에서 시작된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에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매우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가 부산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기대감도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복로에서의 거리공연은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공연을 끝내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 있게 구경하는 시민들과 교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국립부산국악원이라는 훌륭한 공연장에서 양국의 예술단 공연을 견학했습니다. 저희 사이타마 에이사타이도 이 무대에 설 수 있었고, 관객분들의 감동 어린 성원으로 매우 기분 좋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간을 내서 부산근대역사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모르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신사 축제에 참가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느꼈던 시민들과의 교류,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문화재단 모든 분들의 노력과 통역하신 대학생 두 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분들의 따뜻한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쓰시마 「사쿠라유키 Ma-u」

対馬市「桜雪 Ma-u」

나가세 미사코 · 長瀬 美子



사쿠라유키 Ma-u는 「좋아하는 쓰시마를 요사코이로 부흥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모여 3년 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연을 맺은 후 한국에서의 공연은 2번째입니다. 이번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야마구치현의 바칸 기헤이타이, 도요렌테마리, 그리고 부산의 부산기병대와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 긴장되면서도 가슴 벅찼습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해서 느낀 것은 노래와 춤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공연자와 관객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멋진 만남도 있었습니다. 같이 공연한 바칸 기헤이타이는 전부터 교류가 있었지만 도요렌테마리와 부산기병대와는 첫 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춤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친해졌고 즐겁게 같이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와 동행하며 통역해 주신 한국분들은 한국에 머무는 삼 일 내내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셨고 떠나는 날 항구까지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축제 공연장과 거리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부산 시민분들, 이번 축제에서 신세 진 모든 분들, 여러분 덕분에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할 수 있었고 저희 팀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하여 앞으로도 요사코이의 테두리가 더욱 더 넓어지도록 춤으로 교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요렌 테마리

童謡連手鞠

사카구치 신이치로 · 坂口 真一郎

도요렌 테마리가 조선통신사 축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 초계함 침몰사고, 두 번째는 세월호 침몰사고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도 일본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중 맞이한 2015년 조선통신사 축제. 걱정되었던 것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또 못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결정된 후에도 ‘괜찮을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모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연락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느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은 부산항에 도착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두 분과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이 저희의 불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용두산공원에서 신통방통 행사에 선보일 “남자라면”의 대열을 맞추고 순번도 정하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리허설 공연 중에 무대가 흔들린 부분이 있어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맛있는 점심(한국요리)을 먹

고 곧바로 용두산공원 무대로 이동하니 관객 수도 엄청났지만 성원해 주는 뜨거운 환호에 더 놀랐습니다. 공연 후에도 성원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민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몇 번이고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신통방통 공연이 시작되었고 무대도 낮과 밤에 따라 전혀 다른 조명 효과로 아주 멋졌습니다. 무대 뒤쪽에는 큰 화면이 있어 우리의 공연을 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 있었고, 박력 넘치고 화려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은 공교롭게도 비가 왔습니다. 그날은 한일문화교류공연으로 부산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격조 높고 압도적인 공연장 무대로 인해 춤추는 내내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테마리는 「미우타」의 공연조명으로 멋지게 연출되었고 음향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이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공연에 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굉장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에 오니 행사 관계자분들이 기념품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국악원의 공연도 무사히 끝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되고 한국원정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행사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 두 분과 작별의 아쉬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선통신사 축제, 감사합니다. 저희도 도요렌 테마리는 여러분의 환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감사합니다.



정신혜 무용단

鄭信惠舞踊團

윤혜선 · 윤·ヘソン



대학을 입학하고 1학년 때 처음 조선통신사 남포동 행렬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대마도, 시모노세키, 가와고에 등 매년 정신혜무용단 소속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채춤, 장고춤 레파토리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에 참여해 왔다. 나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레파토리는 올해 2015 조선통신사 축제 때 첫 시도를 한 삼고무라고 생각한다. 트럭 위에 삼고무를 싣고 천천히 이동하며 춤추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트럭 위에서 꼭 삼고무를 추고싶다’라는 마음이 진하게 들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서 삼고무 레파토리 무용수로 뽑힐 수 있었다.

행렬 당일 날씨가 화창하여 가족, 연인,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며, 그 중에서도 멋지게 행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부모님과 친척들도 응원을 오셨다. 사람 걸음 속도에 맞춰서 느끼게 트럭이 가겠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트럭이 흔들려 중심을 잡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귀로 한번 즐기고, 눈으로 아름다움을 즐기는 환한 미소를 보면서 힘든 것도 잠시 더 많은 사람들과의 눈을 맞추며 함박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값진 경험을 통하여 오는 8월 초 대마도 이즈하라항 축제에 꼭 참여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화해和解의 메시지 ... 일본 극단의 뮤지컬 공연

— 조선통신사 소재 <쓰바메>, 실존인물 <오다 줄리아> 등

和解のメッセージ ... 日本劇団のミュージカル公演

— 朝鮮通信使を素材にした <つばめ>, 実在人物 <ジュリアおたあ> など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團 副理事長

日本の有名な劇団わらび座が製作したミュージカル <ジュリアおたあ>가 8월 9일 兵庫県民団의 招키で 神戸で 公演される. 光復70周年記念招待舞台上에 公演するこのミュージカルは, 約2,000人の 観客の前で 繰り広げられる. 朝鮮半島から 日本に連れてこられ, 日本本土になった 実在人物ジュリア, 實際に存在していた 歴史的な事実が 数百年の時空を超えて 人々の心に響い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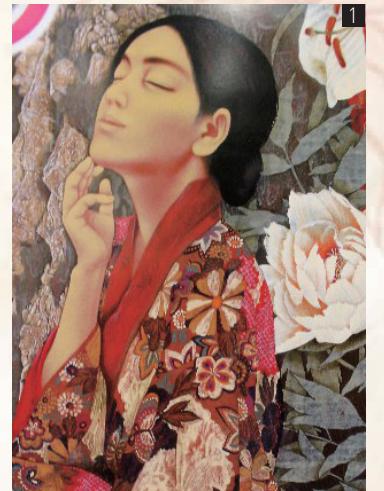
韓日兩國の過去の 歴史問題などで 葛藤と 対立の溝が 深く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かで 日本に連れこられた 朝鮮女性の高潔な 人生を 歴史的な事実のまま 舞台上に 上げるこの 一連の作業は 兩國国民に 眞の和解の 메시지를 抱かせる. 日本の劇団わらび座が 繰り広げている 一連の作業が 実を結び, 平和の花を 大きく咲かせて くれると 信じたい. 彼らに 心の 声援を送る.

일본의 유명 극단 와라비좌[座]가 제작한 뮤지컬 <오다 줄리아>가 오는 8월 9일 효고현[兵庫県] 민단[民團] 초청으로 고베[神戸]에서 공연된다. 광복 70주년 기념 초청무대에 오르는 이 뮤지컬은 2,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펼쳐진다고 민단 효고지방본부 이규섭[李圭燮] 단장이 말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와 성녀[聖女]가 된 오다 줄리아의 일대기를 그린 무대여서 여러 가지로 그 뜻이 깊다.

“오다 줄리아는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여인이다.” “400여 년 전에 이토록 고결한 조선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난해 9월 도쿄 네리마문화센터 공연과 규슈 순회공연, 쓰시마 특별공연 때 객석을 꽉 채웠던 관객들의 감탄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일본의 흙이 된 실존인물 줄리아,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수백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만인의 심금을 울린 것.

크리스천 영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양녀가 된 줄리아는 시약원[施藥院]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한다. 세키가하라 전투 패전으로

1,2,3 오다 줄리아
4 우스이 료우코



유키나가는 처형되고, 줄리아는 도쿠카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잡혀간다. 하지만 측실[側室] 요청을 뿌리치자 오시마 등 외딴섬에 유배, 40년 동안 약초를 캐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오다 1651년 고즈시마에서 선종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일본의 유명 극단 와라비좌이다. 이 극단은 한국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와라비좌의 진보적인 이념은 반전[反戰]이나 한·일관계, 재일동포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와라비좌 설립자 하라 타로[原太郎]는 일본 군국주의 반대편에 섰던 평화주의자로 한국인 제자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은 훌륭한 음악가였다.

와라비좌 극단은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다룬 일련의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아리타야키[有田焼] 창시기에 도래[渡來] 도자기공을 통솔한 여성 백파선[百婆仙]을 모델로 한 뮤지컬 <하쿠바[百婆]>도 그 하나다. 일본에서 조선통신사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킨 뮤지컬 <쓰바메[津波]> 역시 와라비좌 극단의 역작이다. 2002년 첫 공연 이래 350여 회 순회공연에 이어 서울과 부산 내한공연도 했다.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제임스 마키[本名 야마시타 기요모토]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20만 명의 관람객 절반이 중고교생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일 과거사를 무대예술로 보여주었다. “일본이 무[武]로 한반도를 짓밟았음에도 조선이 통신사를 보내 문[文]으로 이를 갚았다. 21세기 오늘에도 음미할 가치가 있는 정신이다.” 연출자 마키의 말이다.

한·일 두 나라에 화해의 씨앗을 날라온 극단 와라비좌는 지방을 문화발신지로 재창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1952년 아키타현 센보쿠시 교외의 한 창고를 빌려 출발한 이 극단은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공연활동을 병행, 복합문화단지 ‘다자와코 예술촌’을 이룩했다. 조선인 주인공의 <제비>, <하쿠바>, <오다 줄리아> 등 일련의 뮤지컬 공연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과거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여성의 고결한 삶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일련의 작업은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를 안겨준다. 일본 극단 와라비좌가 펼쳐오고 있는 일련의 작업이 결실을 맺어 평화의 꽃을 활짝 피워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들에게 마음의 성원을 보낸다.

